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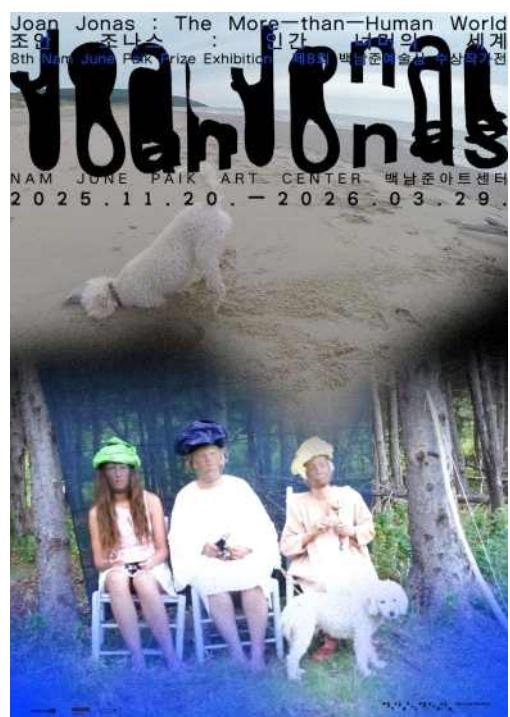
보도자료

제목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작가전 『조안 조나스: 인간 너머의 세계』 개최		
문의	전시: 강연섭 학예연구사 t.031-201-8596 m.010-2906-1746 취재: 김지수 학예연구사 t.031-201-8542 m.010-6750-0450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5. 11. 20.	쪽수	총 13매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작가전 『조안 조나스: 인간 너머의 세계』 개최

8th Nam June Paik Prize Exhibition

Joan Jonas: The More-than-Human World



[전시 포스터]

- ▶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작가 조안 조나스(Joans Jonas)의 국내 최초 미술관 개인 전: 퍼포먼스 비디오, 드로잉, 설치로 이어진 50여 년 작업 여정 조명
- ▶ 생태 개념인 ‘인간 너머의 세계’를 제목으로, 인간·동물·지형·기후 등이 얹힌 전 지구적 관계망을 예술, 기술, 신체의 탐구와 연결하는 전시
- ▶ 1960년대 후반 퍼포먼스, 비디오 실험 작품 <바람>, <오개닉 허니의 비주얼 텔레파시>부터 2000년대 생태적 관심사를 반영한 작품 <시내, 강, 비행, 패턴 III>, <아름다운 개>뿐만 아니라 2025년 최신작 <빈 방>까지, 변주와 확장을 거듭해 온 작가의 창작 궤적을 따라갈 수 있는 전시 구성
- ▶ 개막 프로그램으로 조안 조나스의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반영한 <탐조> 운영, 전시기간 동안 주말 가족 대상 감상 및 창작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전시개요

- 전시명: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작가전 《조안 조나스: 인간 너머의 세계》
8th Nam June Paik Prize Exhibition *Joan Jonas: The More-than-Human World*
- 전시기간: 2025년 11월 20일(목)~ 2026년 3월 29일(일) (총130일)
- 전시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제2전시실
- 참여작가: 조안 조나스(Joan Jonas)
- 전시작품: 비디오, 드로잉, 설치 등 작품 41점 외 아카이브 다수
- 전시기획: 김윤서, 강연섭
- 주최주관: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 전시소개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3월 29일까지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작가전 《조안 조나스: 인간 너머의 세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 미술관에서 최초로 열리는 조안 조나스(Joan Jonas, 1936-, 미국)의 개인전으로, 퍼포먼스·비디오·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50여 년에 걸친 조나스의 예술 실험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조안 조나스는 초기 비디오와 퍼포먼스 실험을 선도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여성성과 정체성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오늘날까지 정체성을 탐구하는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사유를 확장하여 기후 변화와 생태적 위기 속에서 인간과 지구 타자들의 공존을 중심에 두고 계속해서 새로

운 예술의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 전시 제목인 ‘인간 너머의 세계’는 인간과 더불어 지구를 이루는 동식물·지형·기후 등 자연과의 복합적 관계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명에 대한 배움과 존중을 바탕으로 예술세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온 조나스의 관점을 응축한다. 이번 전시는 1960년대 말 비디오와 퍼포먼스를 교차하는 매체 실험에서 출발해, 2000년 대부터 현재까지 생태적 주제에 방점을 두고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작가의 창작 서사를 주제적·형식적 전환과 확장 시점에 따라 세 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장 “실험-급진적인 순간들”은 1960-70년대 뉴욕의 사회적·예술적 환경 속에서 전개된 조나스의 형식 실험을 통해 퍼포먼스와 비디오아트의 선구적 면모를 조명한다. 〈바람〉(1968)은 자연·인간·기술이 상호작용하는 조나스 초기 실험의 핵심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오개닉 허니의 비주얼 텔레파시〉(1972) 역시 비디오의 기술 실험과 함께 가면을 쓴 작가의 분신이 등장하며 당시 여성 이미지의 규범을 해체하고자 했던 결정적 초기작이다.

두 번째 장 “여행-자연의 정령·동물 조력자”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행을 통해 발견한 세계의 문학과 신화, 그리고 동물 조력자의 모티프를 통해 인간중심 서사를 벗어나 새로운 생태적 내러티브를 구축한 과정을 보여준다. 〈시내, 강, 비행, 패턴III〉(2016/2017)은 여행 중 수집한 영상과 오브제 엮은 공간 설치작으로, ‘새’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생활사 장면들과 바람, 빛과 같은 자연 현상을 포착하여 병치한다. 〈아름다운 개〉(2014)는 조나스의 ‘동물 조력자’인 반려견 시점으로 기록한 영상 작품으로, 인간과 동물의 시선을 중첩하면서 종(種)간 경계를 희석한다.

마지막 세 번째 장 “공생-되살림과 변주”는 최근작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시기의 작품들 사이의 주제적, 형식적 연결을 그려낸다. 〈빈 방〉(2025)은 조안 조나스의 조각, 영상, 드로잉, 피아노 작곡이 겹겹이 쌓인 몰입형 공간 설치 작품으로, 1960년대부터 다루어 온 시각 언어를 총체적으로 소환하면서도 비어 있는 공간을 조명하여 사라진 존재들과 그 흔적을 떠올리는 작품이다. 초기부터 구축해 온 조나스의 시각적 어휘들이 반복과 변주를 거듭하며 재맥락화되면서, 선형적 시간을 초월해 현재에도 확장 중인 예술관을 보여준다.

조안 조나스의 한국 첫 미술관 전시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선보이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뉴욕 소호에서 이웃이기도 했던 두 거장은 20세기 비디오 아트의 자장에서 새로운 예술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했음은 물론, 각자의 예술 언어로 생각을 확장하며

실험정신을 공유했다. 백남준아트센터 박남희 관장은 “이번 전시는 백남준의 예술정신과 공명하고 평화를 향해 예술과 기술, 인간과 지구 타자의 경계를 넘어 물질, 동식물, 지형, 기후에 이르는 관계망을 탐색해 온 조나스의 창작을 현재진행형으로 드러내며, 인간 너머 세계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통해 오늘날 직면한 기후 위기와 생태적 문제의식을 사유하는 중요한 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전시 연계 프로그램

◦ 개막 프로그램: <탐조>, 이우만 작가

- 2025. 11. 20. (목), 로비 및 야외공간, 15:00 - 15:50

전시 개막식에는 조안 조나스의 생명체에 대한 배움과 존중을 반영하는 전시 제목 “인간 너머의 세계”의 개념에 관람객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백남준아트센터 주변 자연과 새를 만나고 새소리를 들어보는 탐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 주말 가족 대상 창작 워크숍

- 2025. 11. 29(토) ~ 2026. 3. 29(일) 매주 (토), (일) 14:00 - 15:10

전시 기간 동안 주말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 감상 및 조안 조나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연, 가면에 착안한 만들기 워크숍이 진행된다. 참여는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며, 지지씨멤버스 (<https://members.ngcf.kr/>)에서 예약 가능하다.

◦ 단행본 출판 및 연계 세미나

- 일정 미정

2026년 1월, 출판사 열화당과 함께 조안 조나스의 국내 최초 단행본 발간을 앞두고 있다. 이지은 (미술사학자), 노고운(인류학자), 김성환(작가) 등의 필진이 참여하였으며, 조안 조나스의 작품과 예술 세계에 대한 연구와 이미지를 담아 국내/외 동시 유통 예정이다. 연계 행사로는 단행본 발간 기념 전시 연계 세미나를 준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작가 소개

조안 조나스(Joan Jonas, 1936-, 미국)

조안 조나스(1936년 뉴욕 출생)는 현재까지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 사운드, 텍스트, 조각 등 다양한 미디어를 아우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다. 196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조나스의 실험적 작품은 퍼포먼스와 비디오부터 개념미술과 연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대미술 장르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조나스는 전 세계의 뮤지엄, 갤러리 및 비엔날레에서 전시, 상영,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카셀 도큐멘타 5(1972), 6(1977), 7(1982), 8(1987), 11(2002), 13(2012), 제28회 상파울루 비엔날레(2008),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2015), 제13회 상하이 비엔날레(2021), 제5회 코치-무지리스 비엔날레(2022)에 참여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뉴욕 드로잉센터, 런던 테이트 모던, 포르투 세랄레스 미술관,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마드리드 티센-보르네미사 미술관, 디아 비콘, 뮌헨 하우스 데어 쿤스트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최근 뉴욕현대미술관(MoMA, 2024)에서 회고전을 열었다. 2018년에는 인류의 과학적, 문화적, 정신적 향상에 크게 기여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교토상을 수상했고, 2024년 백남준 예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 백남준 예술상 소개

백남준 예술상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예술의 힘을 실현하며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한 아티스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탐구를 지속하며 갈등 없는 사회를 꿈꾸었던 백남준 예술의 현재적 의미를 오늘의 예술가들과 함께 사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예술상의 취지이다. 2년 주기로 수상 작가를 선정하고 다음 해 수상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2009년 신설하여 2021년까지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수상제도 개편을 거쳐 2024년부터 ‘백남준 예술상’으로 재개하였다. 경기도가 후원하고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가 주최한다.

■ 주요 작품 소개

파트 1. 실험 - 급진적인 순간들



조안 조나스, 〈바람〉, 1968

16mm 필름, 흑백, 무성, 5분 37초

© 조안 조나스/뉴욕 글래드스톤 갤러리 제공

조안 조나스의 초기작 〈바람〉은 1968년 겨울, 뉴욕 롱아일랜드의 해변에서 촬영된 16밀리 흑백 무성 필름이다. 조나스는 퍼포머들의 움직임을 바람이 결정하도록 내맡기며, 즉흥성과 우연성이 극대화된 장면을 연출한다. 이 작품에서 바람은 자연 현상을 넘어 퍼포먼스의 적극적인 주체이자 협업자로 드러난다. 자연, 신체, 겨울 등 조나스의 첫 작업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요소들의 초기 사용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퍼포먼스 예술의 시작과 더불어 초기 필름의 감각을 환기한다.



조안 조나스, <강으로부터 심해의 평원으로>, 2021

드로잉, 싱글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가변 크기

© 조안 조나스/뉴욕 글래드스톤 갤러리 제공

비디오, 드로잉, 사운드를 결합한 설치 <강으로부터 심해의 평원으로>는 강줄기의 흐름이 심해로 이어지는 생태적 순환의 여정을 함축한다. 영상 속 작가와 퍼포머들은 해안의 모래 언덕과 바람 부는 해변을 따라 걷고, 길게 늘어진 종이 위에 선을 긋거나 이를 공중에 띄우며 자연의 리듬을 몸짓으로 나타낸다. 종이의 선, 스크린, 투사된 드로잉은 서로 겹치며, 이미지와 신체, 자연환경이 한데 얹히는 다층적 장면을 만들어낸다. 비디오와 드로잉을 정교하게 이은 이 작업은 조나스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자연의 리듬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심화하여 보여준다. 초기작 <바람>(1968)부터 50여 년에 걸쳐 자연의 힘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다양한 매체로 변주해 온 작가의 예술세계를 총체적으로 함축하는 작품이다.



조안 조나스, <오개닉 허니의 비주얼 텔레파시>, 1972

비디오, 흑백, 유성, 17분 24초

© 조안 조나스/뉴욕 글래드스톤 갤러리 제공

조안 조나스가 1970년 일본 여행에서 구입한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는 그의 예술 언어를 다양화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된다. 스튜디오에서 비디오 카메라와 모니터를 세팅해 두고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곧바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예술가들에게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촬영 후 현상해야만 볼 수 있는 아날로그 감광 필름의 자연성과 달리,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비디오의 즉시성은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조나스는 자신의 움직임이 곧바로 화면에 반영되는 비디오의 특성을 바탕으로 시각적 실험을 발전시켰다. 그 일환으로 생성한 그의 분신 ‘오개닉 허니’는 일종의 위장이자 또 다른 자아로, 조나스는 그를 통해 스스로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조나스 자신과 ‘오개닉 허니’가 번갈아 등장하는 <오개닉 허니의 비주얼 텔레파시>는 비디오 카메라의 시선으로 현실과 재현된 이미지의 간극을 드러낸다.

파트 2. 여행 - 자연의 정령 · 동물 조력자



조안 조나스, 〈시내, 강, 비행, 패턴 III〉, 2016/2017

3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14개의 차이나 마커 드로잉, 종이 연, 가변 크기

© 조안 조나스/뉴욕 글래드스톤 갤러리 제공

조안 조나스가 여행 중 마주한 풍경과 사물, 동물의 흔적들을 모아 비디오, 드로잉, 오브제로 엮어낸 설치 작품이다. 특히 ‘새’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바람과 빛, 자연 현상을 세밀하게 포착한 시도가 두드러진다. 천장에 설치된 종이 연(鳶)은 작가가 베트남 하노이 근교 작은 마을에서 발견한 것으로 여행 중 수집한 오브제를 작업에 반영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비디오는 조나스가 여행하며 촬영한 장면들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식 모자이크와 제노바의 묘지, 싱가포르의 새 보호구역,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숲, 스페인 북부, 인도와 캐나다의 풍경, 베트남의 의례와 공예 등 서로 다른 문화와 장소의 기억이 화면에서 교차된다. 이 작품에서 ‘새’는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로 등장하며, 작품의 흐름을 생성한다.

〈시내, 강, 비행, 패턴 III〉은 조나스가 여행에서 수집한 이미지와 사물들을 토대로 구성한 기록이자, 자연과 인간의 시선이 중첩된 세계를 보여준다.



조안 조나스, 〈아름다운 개〉, 2014

싱글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21분 40초

© 조안 조나스/뉴욕 글래드스톤 갤러리 제공

〈아름다운 개〉는 조안 조나스의 반려견 오즈(Ozu)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비디오 작품이다. 조나스는 오즈의 목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개의 움직임과 시선이 그대로 담기도록 했다. 오즈가 풍경을 가로지르며 걷고 멈추는 동안 카메라에는 흔들리는 풀, 갑작스런 빛의 변화, 기울어지는 수평선이 포착된다. 때로 뒤집히거나 심하게 흔들리는 화면은 오즈의 걸음과 호흡을 그대로 반영한다. 오즈가 조나스와 함께 퍼포머이자 공동 창작자로 드러난 이 작품에서는 인간의 시선과 동물의 시선이 증첩되면서 촬영자와 피사체, 종(種)간의 경계가 희석된다. 캐나다 케이프브레튼의 자연과 함께 인간과 지구타자들 사이의 감각적 교차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파트 3. 공생 - 되살림과 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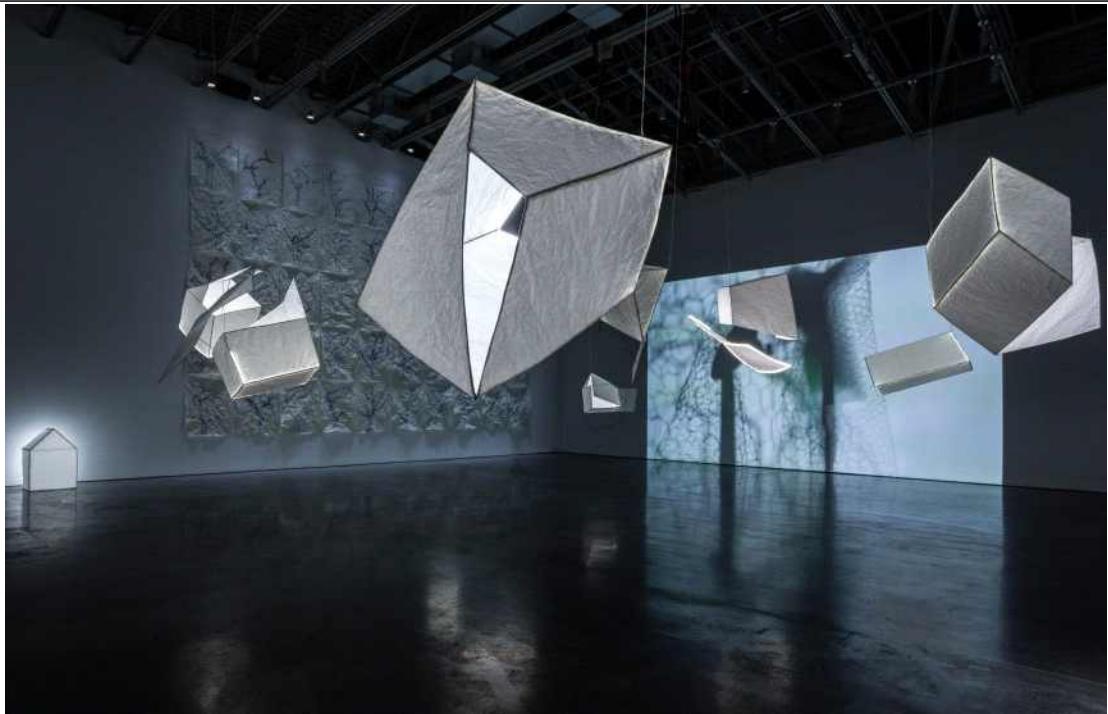


조안 조나스, 〈소리 만지기〉, 2014

3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나무 구조물, 가변 크기

© 조안 조나스/뉴욕 글래드스톤 갤러리 제공

〈소리 만지기〉는 상자 형태의 목조 구조물을 통해 세 개 채널의 비디오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비디오 조각이다. 해양생물학자 데이비드 그루버와의 깊은 교류를 통해 제작된 이 작품은 과학자의 시선으로 기록한 해양생물들과 함께 조안 조나스의 퍼포먼스 드로잉, 낭독, 호흡이 결합해 하나의 생태적 서사를 만든다. 예술이 과학적 시선과 조우할 때 생태적 감수성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 작품은 조나스가 오래도록 탐구해 온 바다와 생명, 인간과 지구타자들의 공생을 함축한다. 관객은 구조물을 통해 시청각 환경에 더욱 몰입하며, 소리를 ‘듣는 것’에서 ‘만지는 것’으로 확장된 감각을 경험한다. 이는 조나스가 오랜 기간 탐구해 온 형식적 레이어링, 즉 퍼포먼스 · 비디오 · 오브제를 결합하여 다층적 감각을 유도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안 조나스, 〈빈 방〉, 2025

12개의 조각(철재, 토리노코 종이, 조명)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설치, 1채널 비디오(컬러, 유성), 수제 종이에 그린 50점의 잉크 드로잉(각 48x36 인치), 고래 조각(표류목과 금속), 제이슨 모란의 오리지널 피아노 작곡

© 조안 조나스/뉴욕 글래드스톤 갤러리 제공

〈빈 방〉은 조각, 드로잉, 비디오가 한 공간에서 교차하며 상실과 기억, 부재와 그리움의 정서를 탐구하는 대규모 설치 작품이다. 조안 조나스가 1960년대부터 오랫동안 다루어 온 시각 언어를 총체적으로 소환하면서도 비어 있는 공간을 통해 사라진 존재와 그 흔적을 활기 한다. 미색의 종이 조각은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허공에 가벼이 떠 있고, 앙상한 있지만 남은 나무 드로잉은 한 쪽 벽면을 빼곡하게 채웠다. 공중 조각과 드로잉의 주재료로 사용된 종이의 주름진 표면, 종이 조각 내부에서부터 발산하는 작은 빛은 생명의 연약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상기하게 한다. 조나스와 오랜 시간 협업해 온 재즈 음악가 제이슨 모란이 작곡한 피아노 선율과 소녀들의 그림자를 담은 비디오는 그의 전작에서부터 지속된 시청각 요소들의 변주로 다시 등장한다. 빛과 그림자, 소리와 침묵, 취약함과 지속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빈 방〉은 생명이 저물고 소생하는 순환을 함축한다.

■ 전시해설

- 도슨트 전시 해설
 - 일시: 화~금 14시, 16시 / 토~일 11시, 13시, 14시, 16시
 - 참여방법: 현장 자율참여

■ 전시 관람안내

- 관람요금: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입장 마감: 관람 종료 1시간 전
-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